

아제르바이잔 수출입 관세 개정 배경 및 전망

김초롱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구미유라시아본부 러시아·유라시아팀 연구원

주요내용

- ▶ 11월 22일 아제르바이잔 정부가 수출입 관세 개정 법안을 승인함에 따라 2018년 1월 1일부터 신관세 체계가 도입될 예정임.
- ▶ 아제르바이잔 정부는 관세 시스템 효율화를 위해 현행 7단계 관세율 체계를 3단계로 간소화했으며, 자국 내 생산 가능한 품목의 수입 대체품 생산 촉진을 도모함.
- ▶ 아제르바이잔 정부는 금번 개정에 따른 통관체계 및 행정 간소화를 통해 교역 활성화를 기대함.
- ▶ 한편, 금번 관세율 개정에 따른 부작용으로 밀수, 소비자 물가 상승 등의 불안요인도 상존하고 있음.

1. 이슈 현황

- ▶ 11월 22일 아제르바이잔 정부가 수출입 관세 개정 법안을 승인함에 따라 2018년 1월 1일부터 신관세 체계가 도입될 예정임.
 - 금번 개정은 △ 무역 선진화 △ 국내 생산 및 비석유 품목 수출 지원 강화 △ 내수시장 보호 △ 관세 시스템 효율화 등을 도모하기 위함.
 - 본 법안 발효와 동시에 2001년 관세법 도입 후 시행 중이던 ‘수입 관세율’ 및 ‘수입 관세 적용 목록과 수출 관세’(정부령 N80)는 효력을 상실함.

2. 원인과 분석

▶ 아제르바이잔 정부는 관세 시스템 효율화를 위해 현행 7단계 관세율 체계를 3단계로 간소화했으며, 자국내 생산 가능한 품목의 수입 대체품 생산 촉진을 도모함.

- 신관세 체계의 최대 관세율은 15%이며, 이는 종가세(15%, 5%, 0%로 분류)와 품목별 종량세가 합산된 금액임.
 - 종가세는 과세가격에 과세 요율에 따라 합산되는 금액이며, 종량세는 품목당 부과됨.
- 과세 후 18%의 부가세가 별도로 징수되며, 통관 수수료는 품목당 최대 AZN550(약 370달러) 부과됨.
- 금번 개정으로 관세가 증액된 품목이 다수이나, 국내 산업 및 농업 촉진을 위한 일부 품목은 감액 또는 면제됨.
 - 수입 품목 중 상위권을 차지하는 산업용 원료 및 설비 중 현재 0.5%의 관세를 적용받는 품목은 신관세 체계에서는 관세가 면제됨.
 - 국내 농산물 생산 확대를 위해 밀씨앗의 관세율을 기존 1~4월 5%, 5~12월 15%에서 각각 0%와 5%로 감액함.
 - 자동차 수입 관세는 기존 배기량 등급별 차등 관세에서 1cc당 신차는 0.7달러, 중고차는 1.2달러로 계산하여 징수될 예정이며, 약 50% 증액됨.

3. 전망과 시사점

▶ 아제르바이잔 정부는 금번 개정에 따른 통관체계 및 행정 간소화를 통해 교역 활성화를 기대함.

- 아제르바이잔은 WTO와 유라시아경제연합(EAEU) 미가입 국가임.
 - WTO 가입을 위해 아제르바이잔 정부의 논의는 지속되고 있으나, 가시적인 성과가 없는 것으로 평가됨.
 - EAEU 가입을 위한 아제르바이잔 정부와 EAEU 사무국과의 회의는 진행 중이나, EAEU 회원국인 아르메니아와의 나고르니-카라바흐 지역의 영토분쟁으로 어려움이 있음.
 - 현실적으로 아르메니아가 아제르바이잔의 EAEU 가입을 차단할 수 없을 것으로 평가되나, 행정적으로 EAEU 공동 사업 추진 또는 정책 제정 등에 큰 장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됨.

- 주요 수입국으로는 러시아, 터키, 중국, 미국, 이탈리아 순이며, 한국은 15위로 전체 수입량의 1.1%로 미미함.
- 한국과 아제르바이잔 무역은 일방적인 한국의 수출로 구성되어 있으며, 2016년도 총 수출액은 전년 대비 3.7% 감소한 1억 1,800만 달러임.
- 한국의 대아제르바이잔 주요 수출 품목은 자동차, 펌프, 자동차부품, 의약품, 화장품 등임.

▶ 한편, 금번 관세율 개정에 따른 부작용으로 밀수, 소비자 물가 상승 등의 불안요인도 상존하고 있음.

- 관세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조지아로 제3국에서 물품 수입 후 조지아-아제르바이잔 FTA를 악용한 우회 수입 횡수 증가 우려가 큼. **EMERiCs**

참고문헌

- EIU, Tradingeconomics, 코트라 바쿠무역관, 현지 언론 자료 등

💡 알립니다

- EMERiCs 이슈분석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(KIEP)에서 발간하고 있으며, 저작권 정책은 '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기준 제 3유형'에 따릅니다. 해당 원고에 대해 사전 동의 없이 상업 상 또는 다른 목적으로 무단 전재·변경·제 3자 배포 등을 금합니다. 또한 본 원고를 인용하시거나 활용하실 경우 △출처 표기 △원본 변경 불가 등의 이용 규칙을 지켜셔야 합니다.
- 본 원고에 대한 글, 그림, 사진 등 저작권자가 표시되어 있지 않은 모든 자료에 대한 저작권 책임은 저자 본인에게 있으며, 해당 원고의 의견은 KIEP 및 EMERiCs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하고 있지 않습니다.